

<2018년 8월 9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<모든 것>을 빨리 해야 된다.
2. 빨리 하고 보니, 모두 ‘어차피 할 일, 꼭 해야 될 일’ 이었다.
3. <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행하는 사람>은 ‘시간을 쥔 자’ 다. 고로 모든 것을 빨리 할 수 있다. 그러지 않은 사람은 ‘시간’을 쥌 수가 없다. 왜? 시간에 쫓기기 때문이다.
4. <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행하는 사람>은 첫째, 영적으로 깨닫고 알기에 빨리 할 수 있고, 둘째, 새벽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빨리 할 수 있다.
5. <빨리 하는 것>이 ‘모든 것의 답’ 이다.
6. 사람이 ‘자기가 해야 될 일’을 모를 때가 있다.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알지, 그러지 않으면 ‘자기 일’도 모른다는 것이다.
7. <자기 일>은 자기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.
8. <자기 일>을 알고, 어서 빨리 ‘자기 일’을 해라.

◎ 금주에는 하나님께서
 <일생동안 원했던 것, 혹은

10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원했던 것>을
해 주신다고 했지요?

선생도 일생동안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.
무엇을 원했을까요?

9. 선생은 ‘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’ - 그것을 일생동안 제일
일 바라고 원했다. 곧,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는 것으로
서,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,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
다.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다.

10. 누구든지 ‘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’ 이 있어야 된다.
또 ‘최고의 사랑’ 을 받아야 된다. 이 두 가지가 그리도 중하
다. 이 사랑은 <땅>에서도, <하늘>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랑이
다. 이것이 ‘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사랑’ 이다.

11. <바늘귀>는 항상 앞쪽을 먼저 끼워야 뒤쪽도 통과하듯, <사랑>
도 먼저는 ‘땅’ 에서 이뤄져야 그다음에 ‘하늘’ 에서도 이뤄
진다. 이 말은 곧, 먼저는 ‘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의 사랑’ 이
통과해야, ‘하나님 사랑’ 도 통과한다는 말이다. <보낸 자>를
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,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. 그
러지 않으면 ‘막연한 사랑’ 이다.

12. <최고의 사랑을 줄 사람>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다.

13. 하나님도 ‘최고의 사랑’ 을 가지고 세셨는데, 줄 사람이 없었

다. 그런데 <땅에 사랑의 조건을 세운 자>가 있었으니, 그가 곧 ‘메시아’ 다.

14. 지금은 ‘생명나무 격인 선생’ 이 활동하고 움직이니, 자기 마음의 금단의 열매가 흥분되어 마치 남녀가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 일어난다. <뇌 사랑>이요, <생각 사랑, 마음 사랑>이다.

15. <사랑 충만>, <진리 충만>한 삶을 살아야 된다.

16. <하나님의 말씀>이 ‘진리’ 다. 그 진리를 받았으면 ‘순종’ 해야 된다. 안 하니, <진리>도 뺏기고 <사랑>도 뺏기는 것이다.

17. <말씀 순종>, <사랑 순종> -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안 뺏긴다.

18. <말씀>과 <사랑>을 절대 뺏기지 말고 행하여라.

19. <말씀>과 <사랑>을 뺏기면, 휴거 됐어도 끝난다. 마치 남녀가 결혼했어도 사랑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과 같다.

20. <사랑>이 없으면, 아무것도 아니다. <사랑의 세계>에서는 ‘사랑’ 이 최고다.

21. <사랑>이 없으면, ‘의’ 를 세웠어도 용납이 안 된다.

22. <사랑>하면, ‘허다한 죄’ 도 용서하고 덮어준다.

23. <사랑>하면, 성공하고 끝난 것이다.

24. <땅>으로도, <하늘>로도 ‘사랑’을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면, 휴거가 안 된다.

25. <절대적인 사랑>이다.

26. 하나님은 ‘절대적인 사랑’으로 창조해 놓으시고, <보낸 자>를 쓰고 ‘사랑’으로 나타나신다.

27. <주를 사랑하는 것>이 100% 완벽해야 된다. 그 사랑이 충분해야 된다.

28. <절대 믿는 것>이 ‘사랑’이다.

29.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“나보다 ‘형제나, 자매나, 남편이나, 부인이나, 물질이나, 환경’을 더 좋아하면, 내게 합당치 않다.” 하셨다. <하나님>보다, <주>보다 더 좋아하면, 그것은 ‘우상’이다.

◎ <완벽한 사랑>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.

30. <가까이 할 때>는 열렬하게 사랑하다가, <보통 때, 안 볼 때>는 사랑이 식고,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‘사랑의 A급’이 안 된다. <절대적인 사랑>, <끊임없는 사랑>을 해야 된다.

31. 누가 보든, 안 보든 열렬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.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‘하나님의 사랑’을 이룬 것이다. 왜? <하나님의 사랑>은 ‘보낸 자’를 통해 이루기 때문이다. <그>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, 언제나 <그>를 통해 나가고 들어간다. <그>는 ‘문’이요, ‘하나님의 집’이요, ‘하나님의 마음’이다. <그>는 ‘머리’요, <따르는 자들>은 ‘지체’다.

32. <사랑>이 완벽하게 서야 된다.

33. <변함없는 사랑, 흔들림 없는 사랑>이 완벽하게 서야 된다. 그런 자는 ‘영원한 사랑의 세계’와 ‘하나님’을 잡은 것이다. <육신>을 잡아야 ‘혼’을 잡고, <혼>을 잡아야 ‘영’을 잡듯이, <보이는 하나님>을 잡으면, <보이지 않는 하나님>을 잡은 것이다. 이는 절대적인 말씀이다.